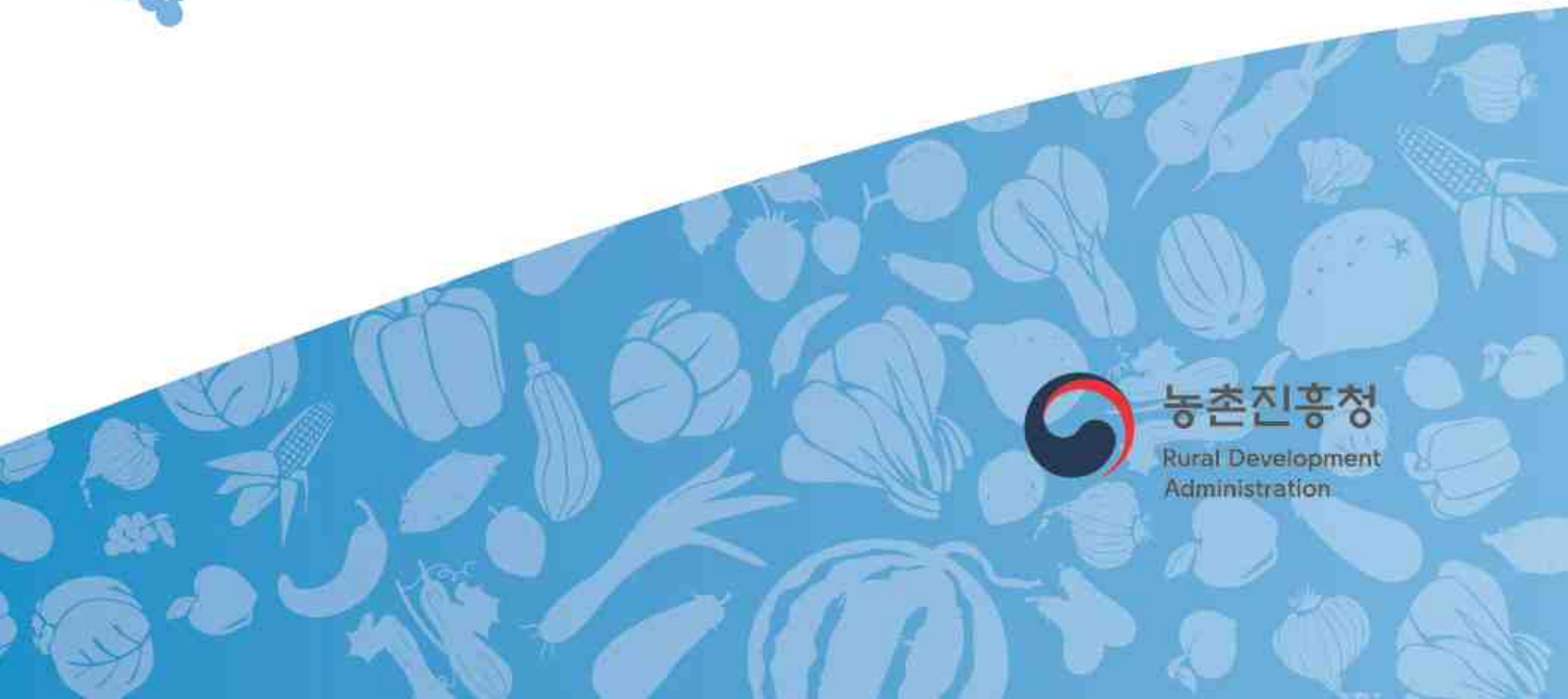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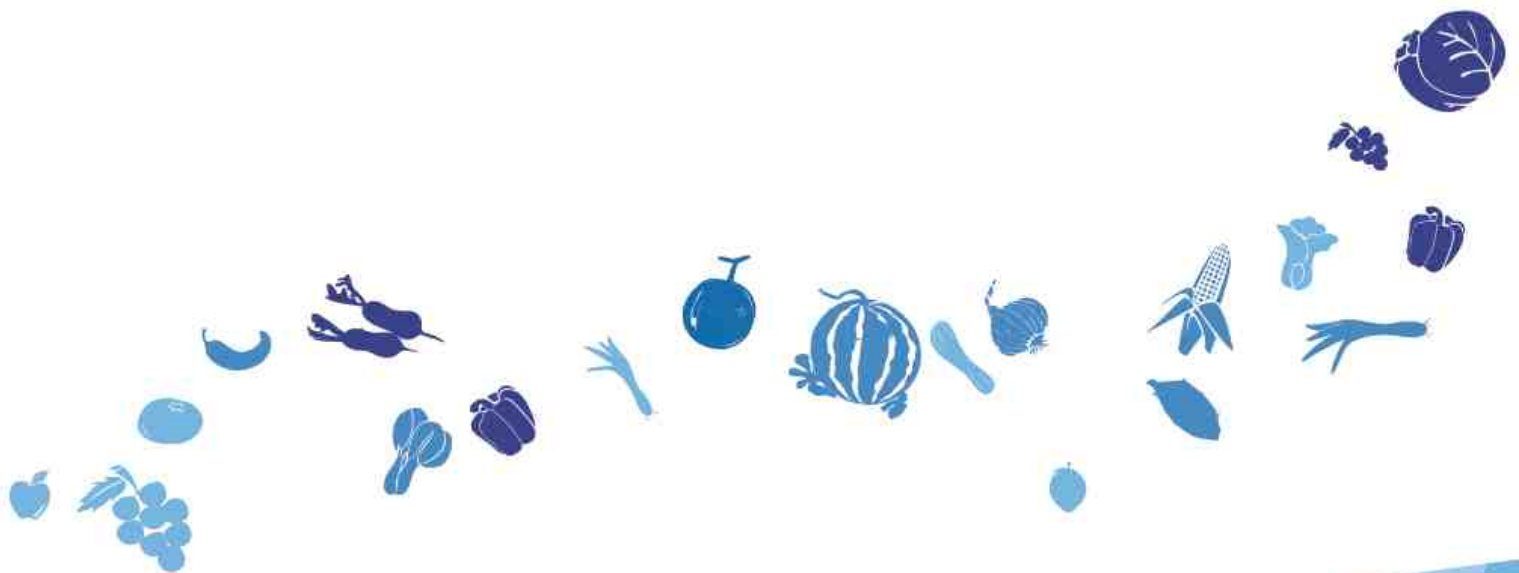




농산물 거래특성과 출하전략

- 감귤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감귤의 거래특성과 출하전략 ①

201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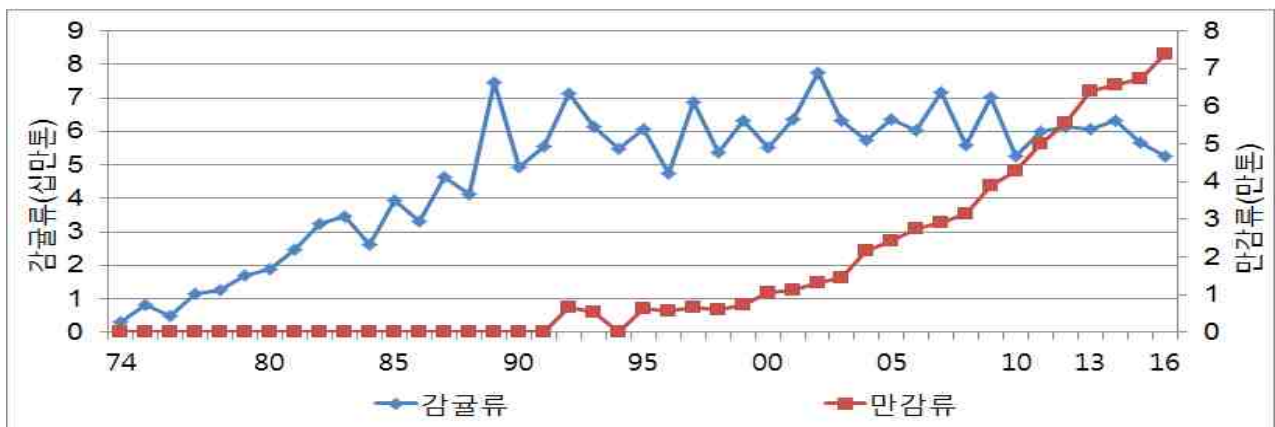
① 감귤의 거래특성과 출하전략

□ 노지·하우스감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90년대 중반 이후 노지감귤은 생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비가림 감귤과 한라봉의 생산량·생산면적이 급증
- 하우스감귤은 노지감귤과 함께 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생산면적·생산량이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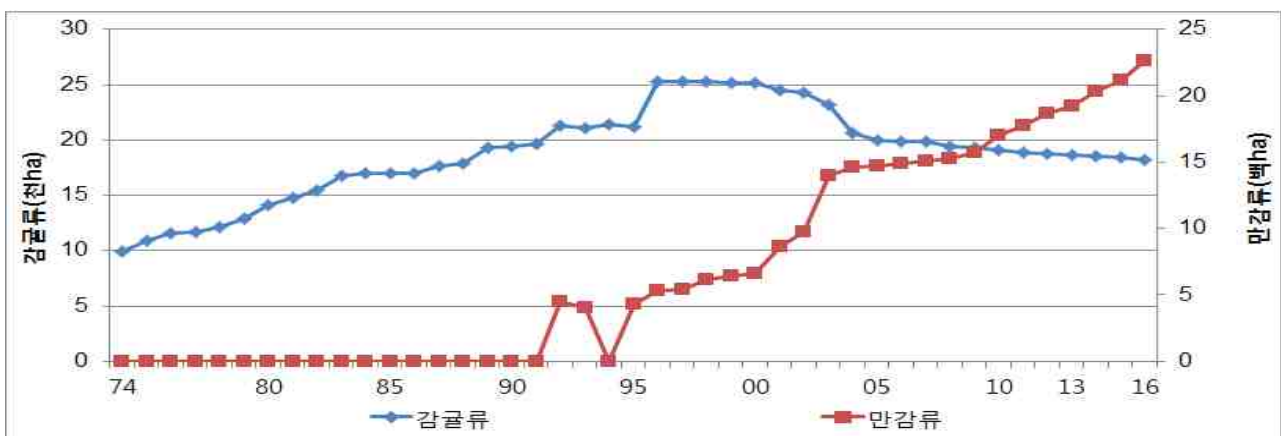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감귤류생산은 감소하고 만감류생산은 증가하는 추세

<감귤류 및 만감류 생산량 변화 추이>



* 자료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각 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감귤류 및 만감류의 생산면적 변화 추이>



* 자료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각 년도,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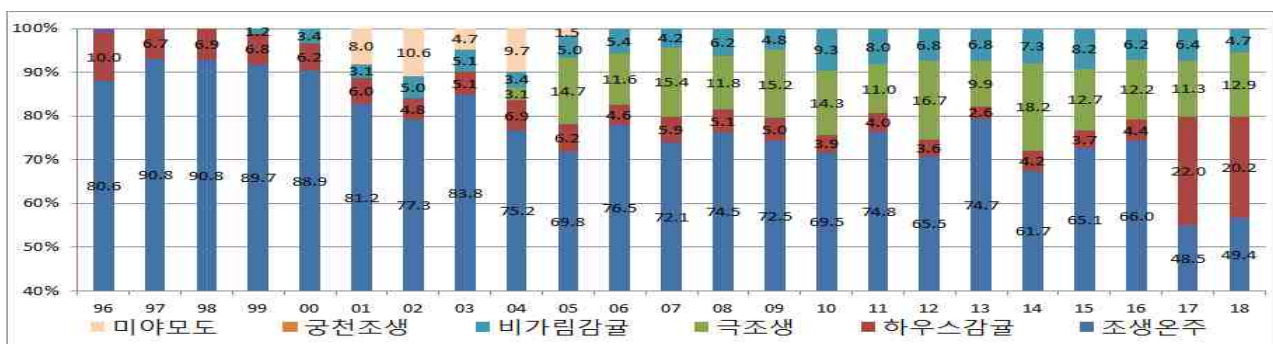
□ 감귤소비는 감소추세

- 2017년도 1인당 감귤류 소비량은 11.6kg으로 최근 15년간 평균 소비량 13.2kg보다 1.6kg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속되는 경향
 - 2017년 1인당 과일류 소비량은 61.2kg으로 최근 15년간 평균 소비량 60.8kg보다 0.4kg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과일류의 자급률이 84.1%에서 72.9%로 11.2%p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감귤소비량 감소는 과일소비의 다양화과정과 관련성이 큼
- * 가락동도매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감귤과 경합이 가장 심한 과일은 딸기(42.0%), 오렌지(28.0%), 사과(14.0%), 바나나(8.0%) 순

□ 맛 중심의 감귤 및 만감류 비중 확대

- 감귤생산량은 노지와 하우스가 감소하는 대신 비가림은 늘어났으며, 한라봉은 감소하고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은 늘어나는 추세
 -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타이백 농법, 수목갱신, 비가림, 부분수확)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으로, 시장의 고품질 감귤 수요도 꾸준히 증가
 - 비가림재배는 생육기 조절로 저장감귤보다 신선한 감귤출하가 가능
- * 동일시기 비가림(1월 중순~3월 초순)의 평균단가는 노지감귤의 약 2배 수준
- 가락동시장 유통인이 예측하는 향후 감귤·만감류 소비는, “감귤 감소 만감류 증가(57.1%)”, “감귤·만감류 모두 감소(28.6%)”, “감귤 증가 만감류 감소(9.5%)”, “감귤·만감류 모두 증가(4.8%)” 순으로 응답
 - * 감귤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는 점차 고급화되는 추세

<감귤류 부류별 점유율 변화 추이>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2000년 이후 진지향과 청견비중이 급감하고 최근에는 한라봉도 급감

- 청견과 진지향 비중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과일(천혜향, 오렌지)보다 당도가 높지 않고 산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
- 카라향은 낮은 인지도와 참외·수박·복숭아 등 대체과일에 비해 특별한 우위성이 없다는 점이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 최근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만감류에 대한 시장평가도 우수
- * 내륙지 생산 만감류에 대한 시장평가는 좋지만 산도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

〈만감류 품종별 점유율변화 추이〉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감귤류 및 만감류의 가격격차 확대

○ 일반 노지 조생 온주감귤보다 만감류가격이 1.4 ~ 1.8배 높게 형성

〈감귤류와 만감류의 출하시기 및 연간 평균가격 수준〉

	주 출하시기	당도(°BX)	2018년 거래단가(원/kg)	가격수준
노지감귤	10월~익년 2월	9.5~11	2,971	100.0
한라봉	12월~익년 3월	12~13	4,192	141.1
레드향	12월~익년 2월	13~14	5,478	184.7
천혜향	12월~익년 3월	11~13	5,094	171.5

○ 감귤류 가격은 전반적으로 정체 내지는 하락추세 유지

- 일반 조생온주감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비가림감귤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후 감소추세
- 하우스감귤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후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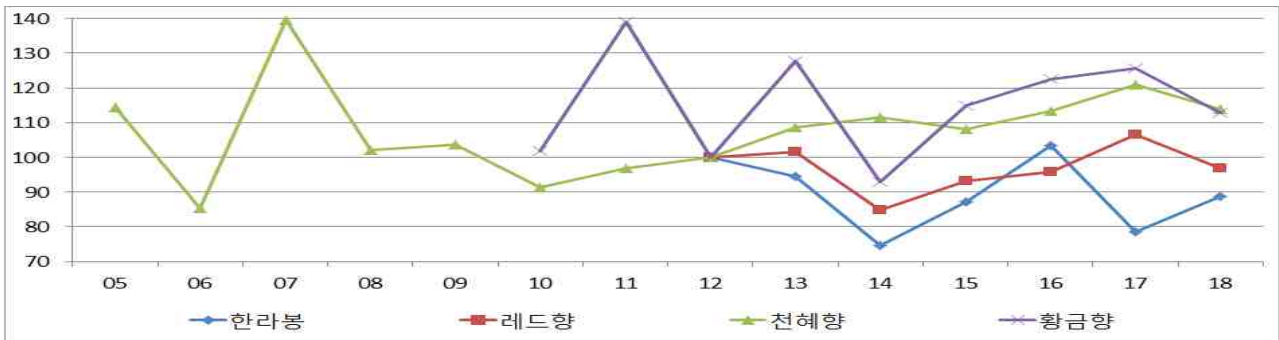
<감귤류의 가격변화(2012=100)>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만감류 가격은 황금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

<만감류의 가격변화(20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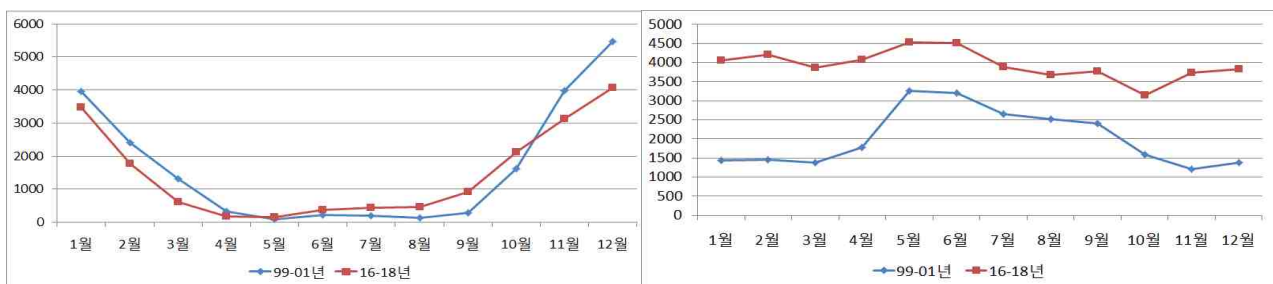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명확해지는 감귤류 및 만감류의 조기 출하 및 주년 출하

○ 감귤류의 도매시장반입량은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의 평균 반입량은 감소하고 5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

- 월별가격은 10월~익년 4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년 평준화 추세

<감귤의 월별 평균반입량 및 평균가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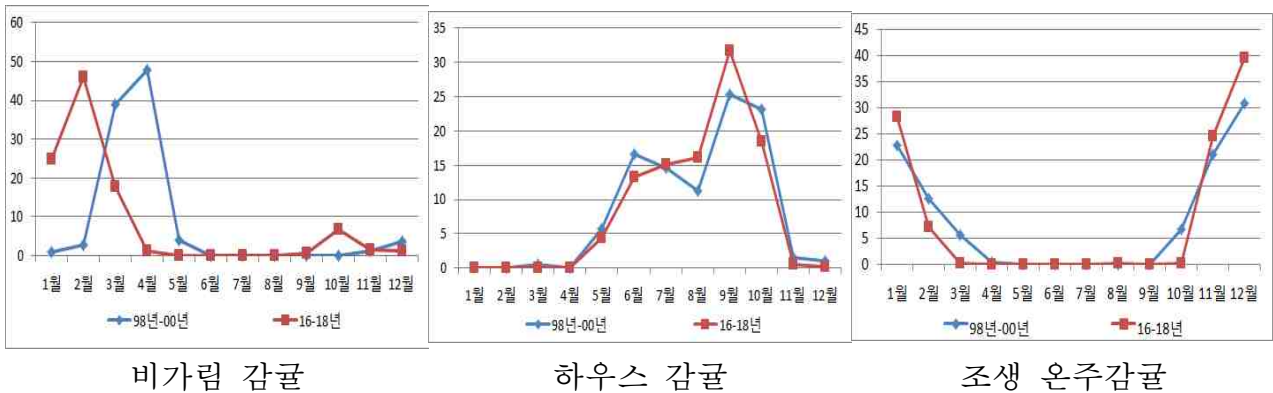
월별 평균반입량

월별 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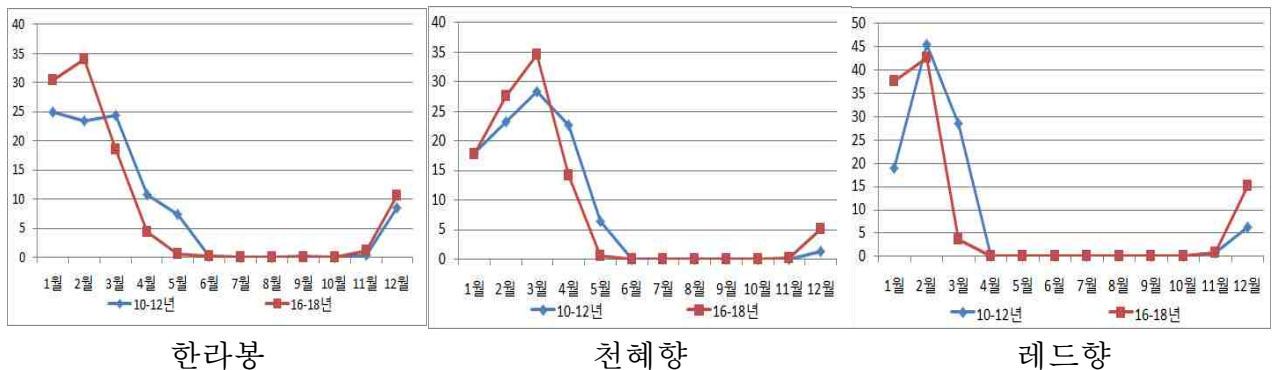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감귤류와 만감류 모두 출하시기를 앞당기려는 현상도 명확해짐

<감귤류의 월별 출하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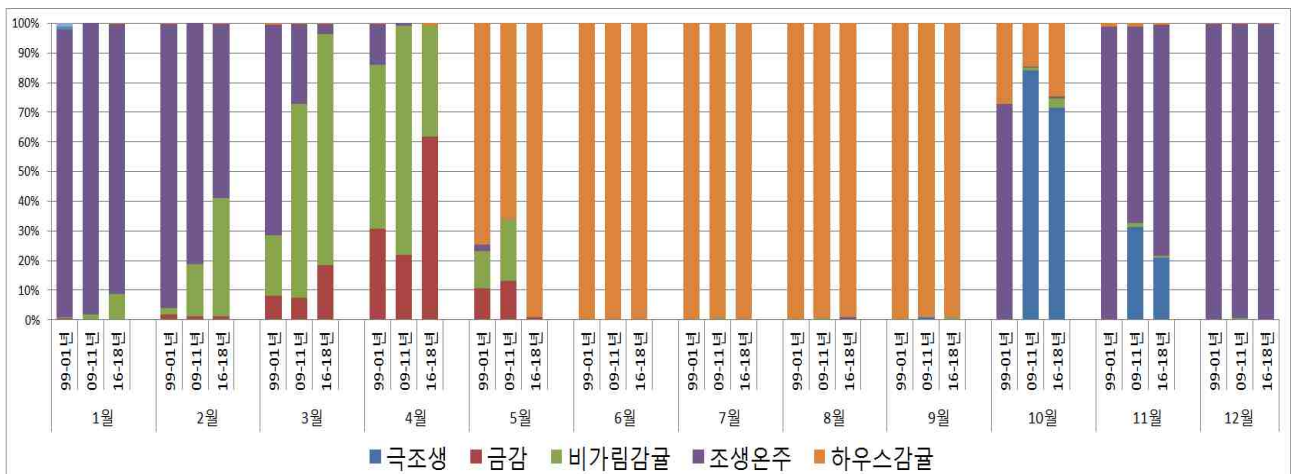
<만감류의 월별 출하비중 변화>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감귤류는 극 조생감귤(10~11월) > 조생감귤(11월~2월) > 비가림감귤 (1월~4월) > 하우스감귤(5월~10월) 순으로 출하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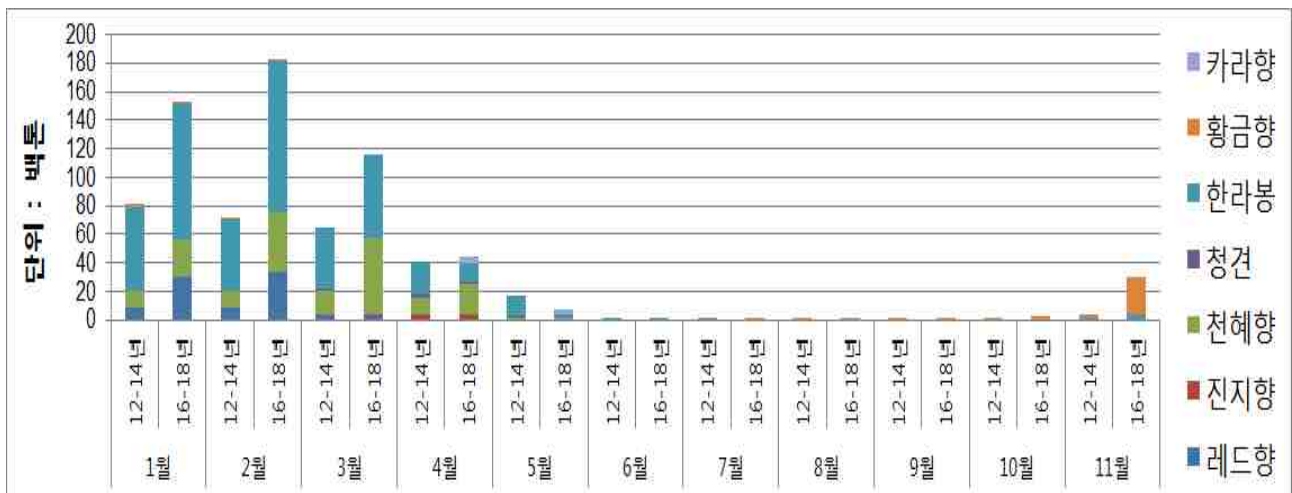
<월별 주요 감귤류의 반입비중 변화>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극 조생감귤은 주력 출하기간인 10월과 11월 과거보다 비중이 감소함
 - 조생감귤은 11월과 12월 출하비중은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저장하여 출하되는 익년 1월부터 3월까지 출하비중이 점차 감소함
 - 비가림감귤은 조생감귤 비중이 감소하는 1월부터 3월까지 출하비중이 점차 늘어나다가 금귤 출하량이 급증하는 4월에 출하비중이 급감함
 - 하우스감귤은 5월에 비중이 증가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변함없음
- 만감류는 황금향(8~12월) > 한라봉(12~익년 3월) > 레드향(12~익년 2월)·천혜향(12월~익년 5월) > 카라향(4~5월)·청견(4~5월)의 순으로 출하되며,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반입량 증가가 두드러짐
- 내륙지역에서의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출하의 주년화가 진행되는 추세이며, 동시에 조기출하도 진행되는 상황

<월별 만감류 반입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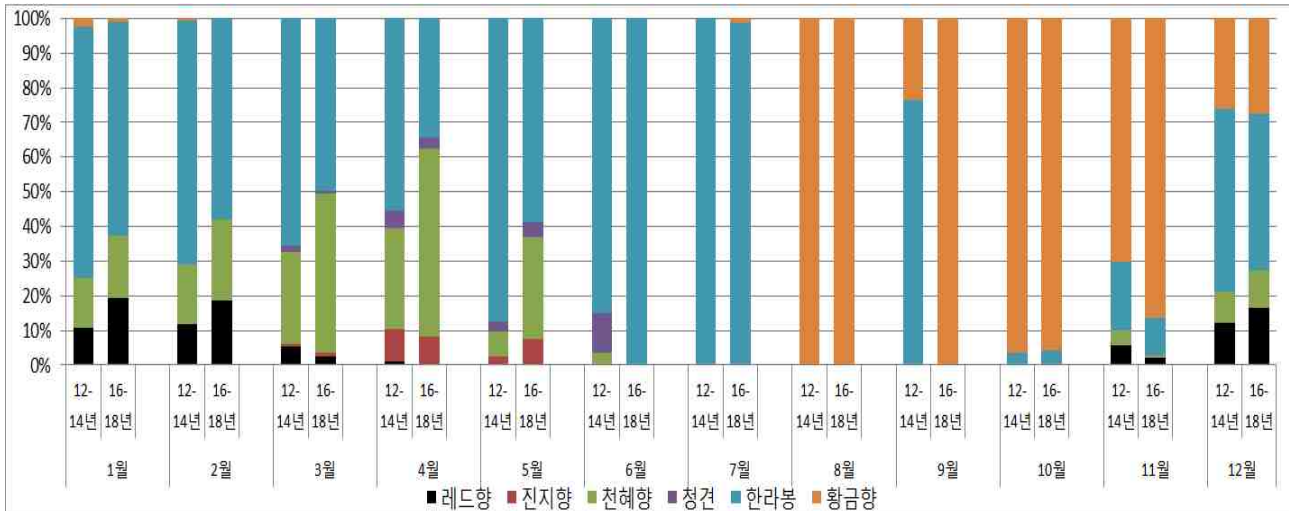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설 특수가 종료되는 2월 이후의 3~4월에는 만감류 반입이 급감
- 만감류 출하가 급감하는 3~4월에 전체 오렌지 수입량의 66%가 집중
- * 가정 소비를 겨냥한 비가림감귤 및 만감류 재배가 필요하다는 의견
- 만감류 중에서 1월~5월까지의 한라봉 점유율이 감소하고 레드향과 천혜향의 비중은 늘어나는 경향
- 한라봉은 조기출하로 미숙과 출하가 많아지면서 점차 비중이 낮아짐

- 한라봉과 함께 출하되는 레드향은 상대적으로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
- 특히 레드향은 12월 ~ 익년 2월, 천혜향은 3월 ~ 5월 반입비중이 급증

〈월별 만감류 반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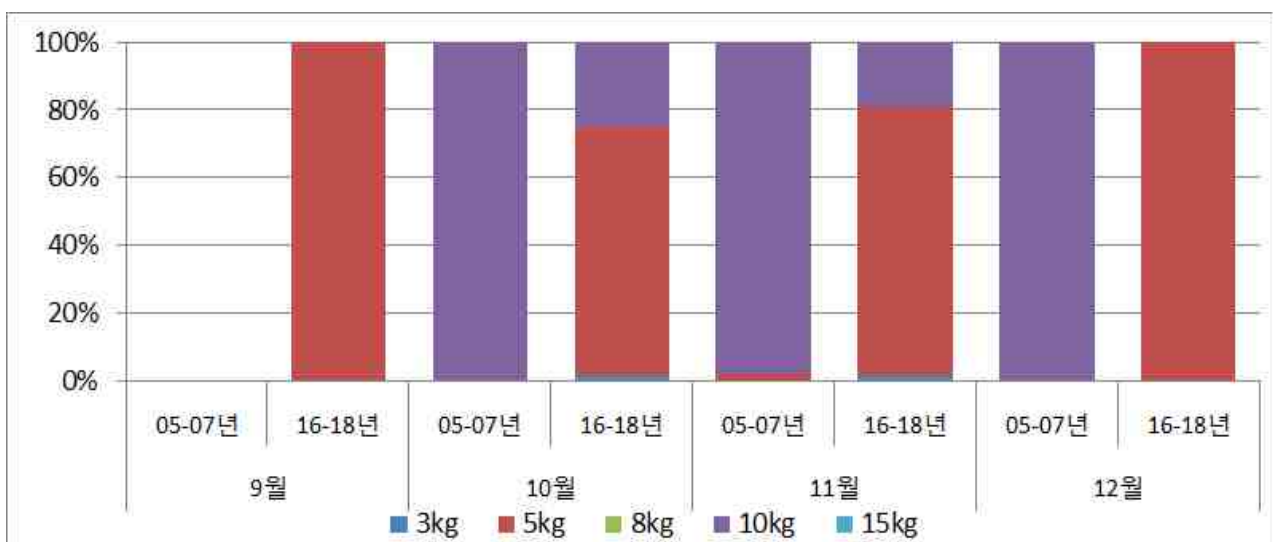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 감귤 및 만감류의 소포장 추세는 뚜렷

- 포장단위가 하우스감귤 5kg→3kg, 극조생·조생 15kg→5kg→5kg로 변화
- 비가림 감귤은 10kg, 15kg포장이 줄고 5kg과 3kg포장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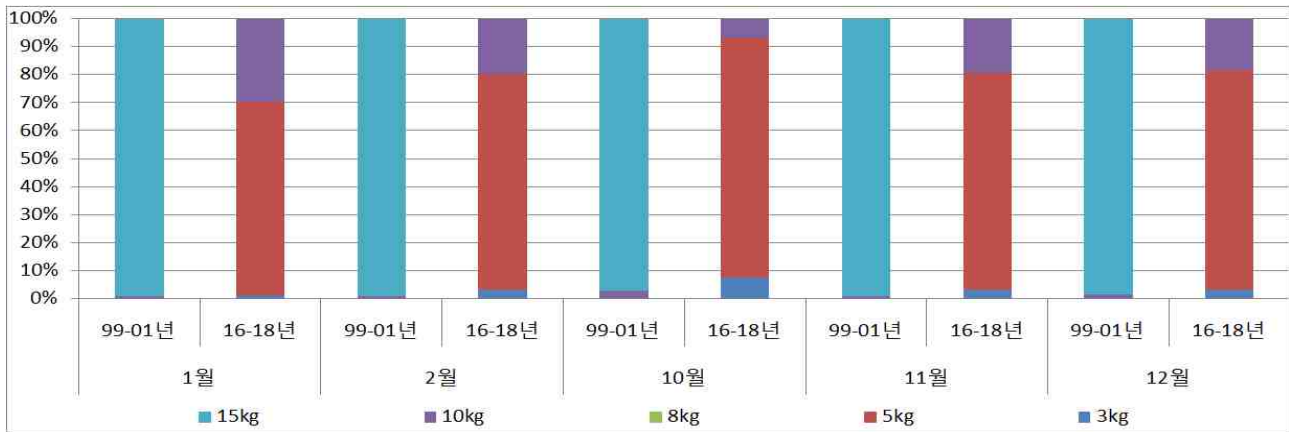
* 5kg극조생·조생감귤의 단가가 10kg상자보다 48% 높아 포장재비 인상분(1kg당 40원 추가발생)을 고려하더라도 소포장추진의 유인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

〈극조생감귤의 포장단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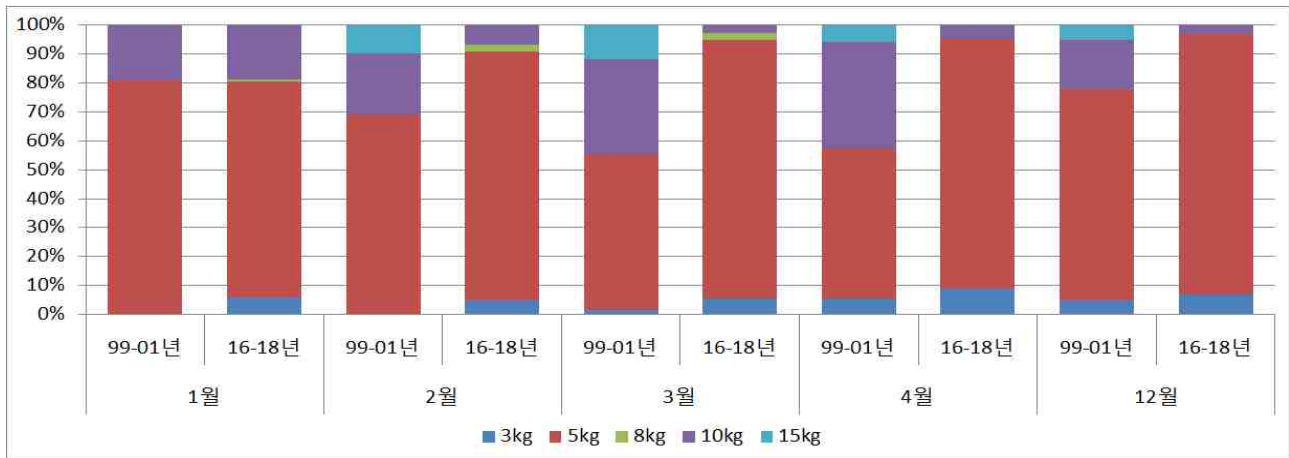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조생감귤의 포장단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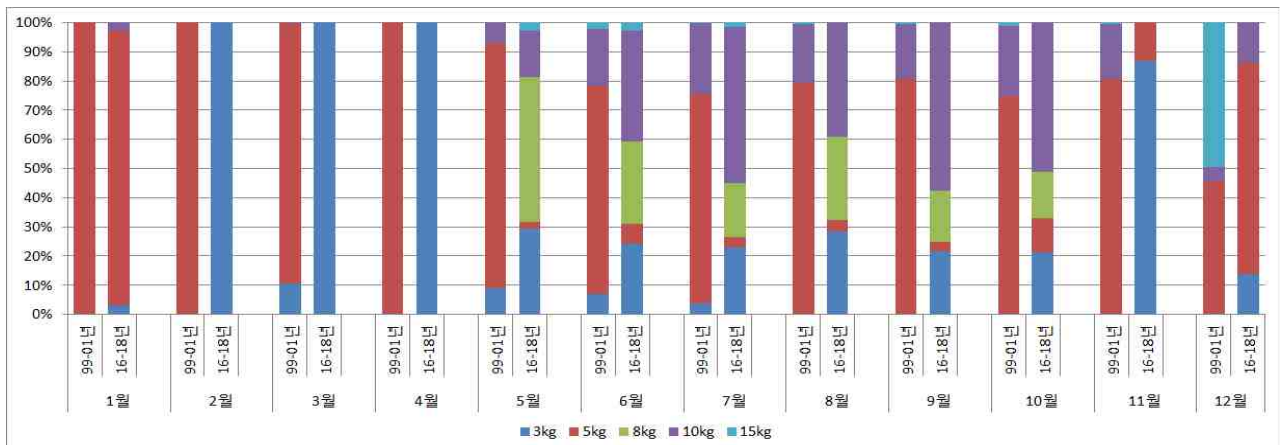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비가림감귤의 포장단위 변화〉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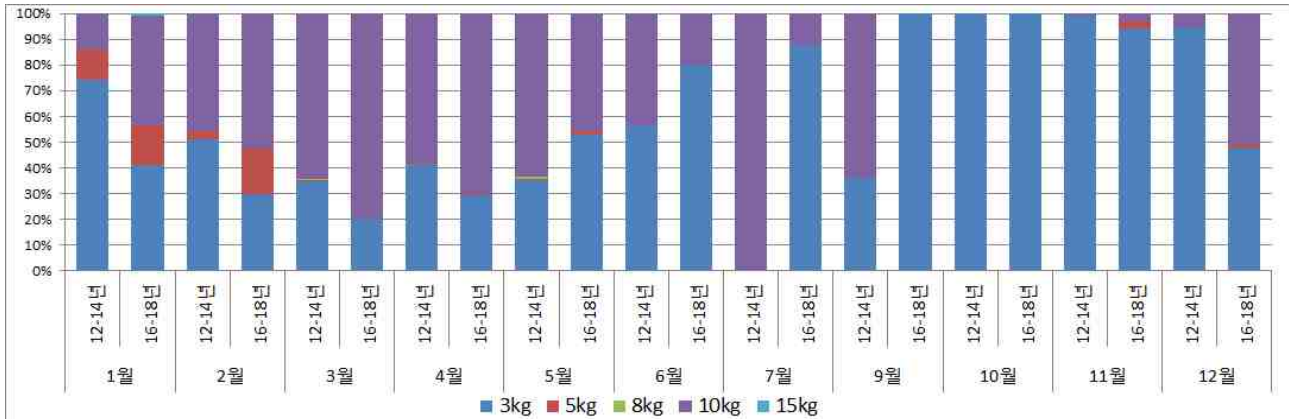
〈하우스감귤의 포장단위 변화〉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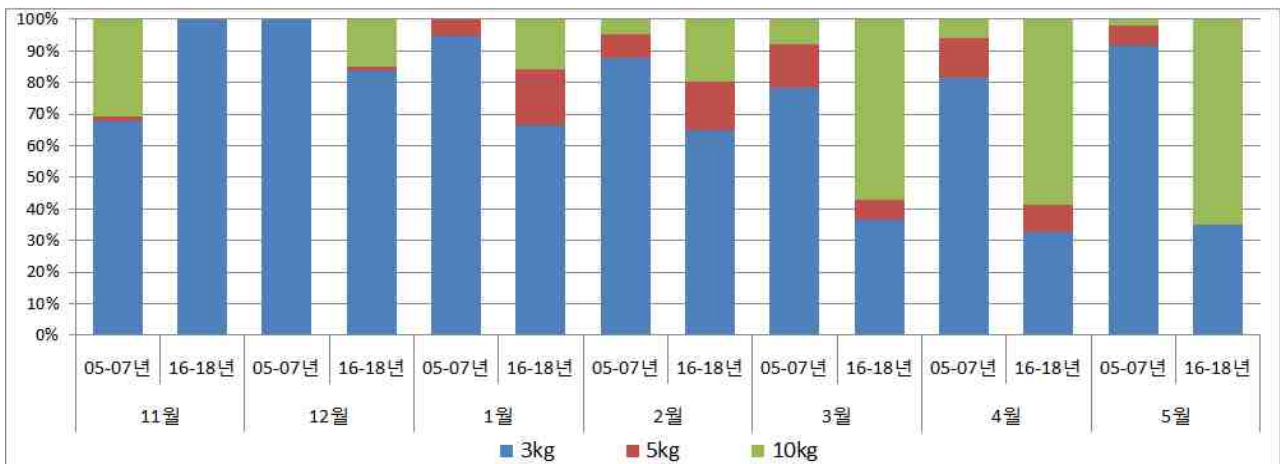
- 만감류는 3kg포장이 중심인 가운데 설 선물용으로 5kg포장이 급증
- 설 선물용 만감류는 주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이 활용되는 경향

<한라봉의 포장단위 변화>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천혜향의 포장단위 변화>



* 자료 : 가락시장 A도매시장법인 내부자료

<제품보호에 중점을 둔 소포장 강화 필요>

- 도매시장 유통인은 감귤포장의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포장재의 강도보강(45.5%), 소포장 확대(31.8%), 포장디자인 개선(22.7%)을 지적
- 도매시장 유통인은 효과적인 감귤류 소포장 단위에 대해 5kg(57.1%), 3-4kg(38.1%), 1-2kg(4.8%)라고 지적
- 도매시장 유통인은 효과적인 만감류 소포장 단위에 대해 5kg(4.8%), 3-4kg(90.5%), 1-2kg(4.8%)라고 지적
- 도매시장 유통인은 소포장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소비촉진(53.1%), 거래가격 상승(40.6%), 신뢰성 제고(6.3%)라고 지적

<도매시장 종사자의 감귤류 품질평가>

○ 감귤류 품질은 맛(당도), 신선도, 저장성, 선별상태, 포장상태, 색깔 등으로 판단하지만, 만족도는 저장성, 신선도, 포장상태, 선별상태, 맛 등이 낮음

* 특히 저장성에 대해서는 유통업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큼

- 당도는 12브릭스 이상은 되어야 상품가치 있는 감귤로 평가하기 때문에 타이백재배와 부분수확 등 고품질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

* 고품질 감귤생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품종보다는 기술적 요인이 크다는 의견

- 신선도유지를 위해 1월 후반으로 갈수록 수확기조절이 가능한 비가림 재배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는 의견

<감귤의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요인	중요도 평균	만족도 평균
1) 맛	5.00	3.65
2) 향	4.00	3.25
3) 신선도	4.67	3.35
4) 껍질벗김의 용이함	3.86	3.45
5) 저장성(상하지 않고 오래감)	4.43	2.95
6) 색깔	4.05	3.55
7) 크기(대과 선호경향)	2.71	3.00
8) 모양	3.38	3.30
9)껍질상태(사비 • 스크래치유무)	3.86	3.20
10) 안전성(친환경, GAP 등)	3.33	3.35
11) 생산지역	3.24	3.65
12) 품종	3.62	3.55
13) 출하규모	3.33	3.50
14) 출하기간	3.71	3.50
15) 선별상태	4.43	3.55
16) 포장상태	4.10	3.40
17) 포장단위	3.71	3.45

* 자료 : 가락시장 유통인(경매사 및 중도매인)대상 설문조사 결과

- 맛은 전체적으로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으로, 당산비율은 8:2가 적절
 - * 산 함량이 낮으면 저장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유통기간 측면에서 중도매인은 감귤의 산 함량을 더 중시하지만, 산도는 1도 이내인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
- 색깔은 노란색에 붉은 빛깔이 도는 것을 좋은 감귤로 평가
 - * 감귤은 극조생이 출하되는 11월초까지는 착색이 다소 미흡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11월 초순 이후부터(조생종이 출하)는 착색 미흡시 낮은 품질 평가로 이어진다는 의견
- 향은 감귤 특유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향을 선호
- 감귤은 식감도 중시하는 편으로, 먹었을 때 이물감이 없는 것을 선호
 - * 속껍질이 입속에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목 넘김이 있는 것을 좋은 감귤로 평가
- 선별·포장은 당도, 색깔, 모양, 크기 별로 균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
- 시장에서 선호하는 감귤 크기는 S사이즈(55-58mm, 65-82g)>2S·M>L>2L순
- 감귤은 껍질이 얇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지만, 껍질 벗김의 용이함이 가격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
 - * 껍질이 얇을수록 껍질이 들뜬 과일(부피과)이 적고 맛이 좋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

〈상품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감귤류의 특성〉

구분		중도매인	경매사
맛	전체적으로 단맛만 나는 것	30.8%	25.0%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	69.2%	75.0%
당도	입당도 기준 평균 (브릭스)	12.0	11.4
당산도 비율	선호하는 당도와 산도의 비율	75% : 25%	84.3% : 15.7%
크기	S(65-82g), M(83-106g)	S(63.3개/5kg)	S(71.4개/5kg)
색상	연한 오렌지색	30.8	12.5
	붉은색이 도는 것	69.2	87.5
표면	매끄러운 것	84.6%	100.0%
	거친 것	15.4%	0.0%
광택	중도매인은 5점 만점기준 3.85점 정도로 광택을 중시		
	경매사는 5점 만점기준 3.75점 정도로 광택을 중시		

* 자료 : 가락시장 유통인(경매사 및 중도매인)대상 설문조사 결과

○ 과거보다 맛(당도), 신선도, 저장성, 선별상태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진 반면, 크기에 대한 중요도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 감귤의 생산지역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중시한다는 의견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남
- 온주감귤은 품종표기 없이 출하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통업자는 과거보다 품종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선도와 관련하여 부분수확 된 감귤이나 비가림 감귤과 같이 저장하지 않은 신선한 감귤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
- 일시에 수확하여 인위적으로 착색을 유도한 감귤은 저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저장·유통과정에서 손실율도 높다는 의견

* 일반 조생감귤은 최근 2~3년 사이에 강제착색 사례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의견

<감귤 품질에 대한 선호도 변화>

	과거보다 매우중시	과거보다 약간중시	과거와 변화없음	과거보다 약간덜중시	과거보다 매우덜중시
맛	85.7	14.3	0.0	0.0	0.0
향	30.0	40.0	30.0	0.0	0.0
신선도	61.9	38.1	0.0	0.0	0.0
껍질 벗김 용이함	14.3	47.6	38.1	0.0	0.0
저장성	57.1	28.6	14.3	0.0	0.0
색깔	19.0	57.1	23.8	0.0	0.0
크기	0.0	14.3	28.6	23.8	33.3
모양	9.5	42.9	47.6	0.0	0.0
껍질상태(사비,스크래치 유무)	23.8	23.8	33.3	19.0	0.0
생산지역	14.3	19.0	38.1	19.0	9.5
품종	4.8	42.9	38.1	14.3	0.0
출하규모	14.3	28.6	42.9	9.5	4.8
출하기간	4.8	47.6	47.6	0.0	0.0
선별상태	57.1	38.1	4.8	0.0	0.0
포장상태	42.9	52.4	4.8	0.0	0.0
포장단위	33.3	52.4	14.3	0.0	0.0

* 자료 : 가락시장 유통인(경매사 및 중도매인)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매시장 종사자의 만감류 품질평가>

○ 만감류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맛, 향, 식감, 색깔·모양, 껍질 벗김의 용이함 등으로 판단하는 경향

- 당도는 12브릭스 이상은 되어야 상품가치가 있는 만감류로 평가되고, 높은 가격을 실현하는 만감류는 13~14브릭스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
*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의 만감류는 높은 당도를 위해 부분수확이 가장 중요
- 향은 고객별로 호불호(好不好)가 다르지만, 품종 고유의 향이 진하게 발현되는 것을 좋은 만감류로 평가
- 식감은 먹었을 때 속껍질과 같은 이물감이 입에 남지 않는 것을 선호
- 색깔은 붉은빛이 도는 진한 노란색을 선호하며, 모양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유지한 것을 좋은 만감류로 평가
- 만감류의 크기는 선물용 5kg 기준 12~14개의 크기의 대과를 선호

<상품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감류의 특성>

구분		중도매인	경매사
맛	전체적으로 단맛만 나는 것	23.1%	37.5%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	76.9%	62.5%
당도	입당도 기준 평균 (브릭스)	13.0	13.1
당산도 비율	선호하는 당도와 산도의 비율	71.9 : 28.1	87.1 : 12.9
크기	선물용(5kg) 기준 개수	13.4	14.8
색상	연한 오렌지색	21.4%	0.0%
	붉은색이 도는 것	78.6%	100.0%
표면	매끄러운 것	84.6%	100.0%
	거친 것	15.4%	0.0%
광택	중도매인은 5점 만점기준 3.88점 정도로 광택을 중시		
	중도매인은 5점 만점기준 4.00점 정도로 광택을 중시		

* 자료 : 가락시장 유통인(경매사 및 중도매인)대상 설문조사 결과

- 시장에서의 만감류 품질평가는 품종별로 요인별 중시정도가 다른 경향
 - 한라봉은 모양(적당한 괴경부 돌출), 색깔(진노란색)을 특히 중시
 - 천혜향 맛(쓴맛이 섞이지 않는 것)과 모양(편원형)을 특히 중시
 - 레드향은 맛과 모양(매끄러운 편원형)을 특히 중시
- * 품종별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모양(납작과, 뽕족과 등)은 유통인이 선호하지 않음
- 시장에서는 1월 초순경에 완숙될 수 있는 만감류를 필요로 함
 - 설 선물용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된다면, 설 이후에 완숙된 만감류(한라봉, 레드향 등)의 소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3~4월 만감류 소비확대와 수입억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는 의견

도매시장 종사자가 원하는 산지의 감귤 및 만감류 출하방식

- 도매시장유통종사자는 감귤류 출하시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품질확인시스템>운송방법개선>송품장에 명확한 등급표시를 지적
 - 감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증 받을 수 있는 산지에 대한 유통업자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경향
 - 기존의 철제컨테이너 사용에 따른 유통과정에서의 무름과 발생문제와 도매시장 도착 이후 출하차별(도매시장법인)로 이동 하역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쌓여있던 과일이 넘어지며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는 파렛트출하가 필요하다는 의견
 - 송품장에 등급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하역상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판매결과에 따른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출하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 발생
 - * 감귤의 등급별 가격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등급별 수량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시장에 출하됨에 따라 정확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높음
- 도매시장은 산지의 출하조건에 대해 품질이 균일한 감귤류·만감류를 일정규모 이상 지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

- (출하규모) 중도매인이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감귤류·만감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색깔·크기별로 감귤류는 최소 150상자 이상, 만감류는 60상자 이상은 출하할 수 있는 출하자를 중시
- (출하기간) 중도매인 등은 균일한 품질의 감귤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회씩이라도 꾸준히 일정 물량을 출하하는 산지를 선호
- (등급구분) 중도매인은 등급을 세분화하여 균일하게 선별하여 포장하는
 - * 선별시 색깔, 맛, 크기 등이 일정해야 하며, 생산자 기준이 아닌 구매자 기준에서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주거래 중도매인 특성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별로 기준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



유통과정에서 부패된 감귤

계 호		(단감출하신고, 감귤출하통지서 겸용)		계 호	
① 출하 일자	2011년 12월 10일	⑥ 단 계 명	사귀포	⑦ 전 화 번 호	(064) 733-XXXX
② 도착 일자	2011년 12월 10일	⑧ 출하 단 계	사귀포	⑧ 팩스 번 호	(064) 733-XXXX
③ 코드 번호		⑨ 출하자명		⑨ 송금 계좌	351-0765-XXXX
④ 출하자명		⑩ 출하량			
⑤ 전 화 번 호					

1. 출하내용		출판장 위치 (TEL. XXX-XXXX)	
출하자 (생산자)	상표명	생산지	품종
	서늘한	조반	사
	3L-299		
	6-295		
	19-142		
	1L-139		
	2L-49		

2. 검사 및 출하		사 일 자		문	
출하 일자	2011년 12월 10일	년 월 일	출하 일자	년 월 일	문
출하자명	서늘한	출하량	출하자명	출하량	문
출하량	624	출하량	출하량	출하량	문

등급별 수량표시가 되지 않은 송품장



철제컨테이너에서 이동 중 무너진 상자더미



한라봉 개수표기 오류(표기 34개, 실제 38개)



천혜향 3kg포장 중량(3.33kg)



천혜향 3kg포장상자 중량(660g)

<참 고> 감귤 농가의 소득

□ 작형별 10a당 수익성 비교(2017년)

구 분	노지재배	시설재배	하우스월동	한라봉	세토카
총수입(천원)	4,222	23,626	9,405	12,346	15,513
- 수량(kg)	3,040	5,368	4,073	3,543	3,396
- 가격(원)	1,389	4,401	2,309	3,485	4,567
경영비(천원)	1,188	11,329	4,517	6,384	5,497
생산비(천원)	2,997	14,263	6,179	8,855	9,322
소 득(천원)	3,034	12,297	4,886	5,962	10,016
소득률(%)	71.9	52.1	52.0	48.3	64.6

* 전국(노지감귤), 지역(시설감귤, 하우스월동, 한라봉, 세토카), 조사지역은 모두 제주

* 작목명(농가수): 노지감귤(45), 시설감귤(24), 하우스월동(9), 한라봉(25), 세토카(9)

○ 2017년산 노지재배 감귤에 비해 시설재배 감귤의 10a당 소득은 12,297천원으로 4.1배 가량 높으며, 세토카는 3.3배, 한라봉은 2배, 하우스월동감귤은 1.6배 높음.

- 노지재배 감귤은 수량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총수입이 다른 작형 감귤의 18%(시설재배)~45%(하우스월동)이나, 경영비가 11%(시설재배)~26%(하우스월동)에 불과해 소득률은 가장 높음.

□ 10a당 수익성 변화 (노지감귤)

구 분	2010년	2016년(A)	2017년(B)	증감율(B/A)
총수입(천원)	3,035	3,852	4,222	9.6
- 수량(kg)	2,813	3,233	3,040	-6.0
- 가격(원)	1,079	1,191	1,389	16.6
경영비(천원)	888	1,046	1,188	13.6
생산비(천원)	2,001	2,860	2,997	4.8
소 득(천원)	2,147	2,805	3,034	8.2
소득률(%)	70.7	72.8	71.9	-1.2

○ 2017년 노지재배 감귤 10a당 총수입은 4,222천원(전년대비 9.6% 증가)

- 전년대비 수량은 6.0% 감소했으나, 가격이 16.6% 상승하여 총수입 증가

○ 10a당 경영비는 1,188천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으나, 총수입 증가에 따라 소득은 3,034천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

□ 10a당 수익성 변화 (시설감귤)

구 분	2010년	2016년(A)	2017년(B)	증감율(B/A)
총수입(천 원)	26,387	25,639	23,626	-7.9
- 수량(kg)	5,719	5,952	5,368	-9.8
- 가격(원)	4,614	4,307	4,401	2.2
경영비(천 원)	13,432	10,443	11,329	8.5
생산비(천 원)	15,531	13,290	14,263	7.3
소 득(천 원)	12,956	15,196	12,297	-19.1
소득률(%)	49.1	59.3	52.1	-12.1

- 2017년 시설재배 감귤 10a당 총수입은 23,626천원(전년대비 7.9% 감소)
 - 전년대비 가격은 2.2% 상승했으나, 수량이 9.8% 감소하여 총수입 감소
- 10a당 경영비는 11,329천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고, 총수입 감소에 따라 소득은 12,297천원으로 전년대비 19.1% 감소

□ 10a당 수익성 변화 (하우스월동)

구 분	2010년	2016년(A)	2017년(B)	증감율(B/A)
총수입(천 원)	6,099	11,220	9,405	-16.2
- 수량(kg)	3,104	4,242	4,073	-4.0
- 가격(원)	1,965	2,645	2,309	-12.7
경영비(천 원)	3,114	4,921	4,517	-8.2
생산비(천 원)	4,378	6,402	6,179	-3.5
소 득(천 원)	2,985	6,299	4,886	-22.4
소득률(%)	48.9	56.1	52.0	-7.3

- 2017년 하우스월동감귤 10a당 총수입은 9,405천원(전년대비 16.2% 감소)
 - 전년대비 가격이 4.0% 하락하고, 수량이 12.7% 감소하여 총수입 감소
- 10a당 경영비는 4,517천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하고, 총수입 감소에 따라 소득은 4,886천원으로 전년대비 22.4% 감소

□ 10a당 수익성 변화 (한라봉)

구 분	2010년	2016년(A)	2017년(B)	증감율(B/A)
총수입(천 원)	13,421	11,729	12,346	5.3
- 수량(kg)	3,031	2,957	3,543	19.8
- 가격(원)	4,428	3,966	3,485	-12.1
경영비(천 원)	5,455	5,605	6,384	13.9
생산비(천 원)	7,672	8,087	8,855	9.5
소 득(천 원)	7,966	6,124	5,962	-2.6
소득률(%)	59.4	52.2	48.3	-7.5

○ 2017년 한라봉 10a당 총수입은 12,346천원(전년대비 5.3% 증가)

- 전년대비 가격이 12.1% 하락했으나, 수량이 19.8% 증가하여 총수입 증가

○ 10a당 경영비는 6,384천원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으나, 총수입 증가로 소득은 5,962천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

□ 10a당 수익성 변화 (세토카)

구 분	2010년	2016년(A)	2017년(B)	증감율(B/A)
총수입(천 원)	18,450	18,392	15,513	-15.7
- 수량(kg)	3,432	3,781	3,396	-10.2
- 가격(원)	5,376	4,864	4,567	-6.1
경영비(천 원)	5,436	5,066	5,497	8.5
생산비(천 원)	7,635	8,992	9,322	3.7
소 득(천 원)	13,014	13,326	10,016	-24.8
소득률(%)	70.5	72.5	64.6	-10.9

○ 2017년 세토카 10a당 총수입은 15,513천원(전년대비 15.7% 감소)

- 전년대비 가격이 6.1% 하락하고, 수량이 10.2% 감소하여 총수입 감소

○ 10a당 경영비는 5,497천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고, 총수입 감소에 따라 소득은 10,016천원으로 전년대비 24.8% 감소

□ 상 · 하위 20% 농가간 소득 비교 (노지감귤)

(기준 : 10a)

구 분	상위농가(A)	평균(B)	하위농가(C)	비율		
				A/B	C/B	A/C
총수입(천원)	7,298	4,222	1,729	1.7	0.4	4.2
- 수량(kg)	4,542	3,040	1,649	1.5	0.5	2.8
- 가격(원)	1,753	1,420	1,114	1.2	0.8	1.6
경영비(천원)	1,258	1,188	983	1.1	0.8	1.3
소 득(천원)	6,040	3,034	746	2.0	0.2	8.1

○ 2017년산 노지감귤재배 상위농가의 소득은 6,040천원으로 하위농가의 8.1배 수준

○ 상위농가와 하위농가의 10a당 경영비는 비슷하였으나, 상위농가의 수량은 2.8배, 수취가격은 1.6배여서 총수입은 훨씬 많음

☞ 경영비와 가격보다 수량이 총수입과 소득에 더 영향을 미침

□ 상 · 하위 20% 농가간 소득 비교 (시설감귤)

(기준 : 10a)

구 분	상위농가(A)	평균(B)	하위농가(C)	비율		
				A/B	C/B	A/C
총수입(천원)	33,080	23,626	14,860	1.4	0.6	2.2
- 수량(kg)	5,372	5,368	3,733	1.0	0.7	1.4
- 가격(원)	6,211	4,420	4,081	1.4	0.9	1.5
경영비(천원)	11,186	11,328	10,407	1.0	0.9	1.1
소 득(천원)	21,894	12,297	4,453	1.8	0.4	4.9

○ 2017년산 시설감귤재배 상위농가의 소득은 21,894천원으로 하위농가의 4.9배 수준

○ 상위농가와 하위농가의 10a당 경영비는 비슷하였으나, 상위농가의 수량은 1.4배, 수취가격은 1.5배여서 총수입이 많음

☞ 경영비보다 가격과 수량이 총수입과 소득에 더 영향을 미침

상 · 하위 20%농가간 소득 비교 (하우스월동감귤)

(기준 : 10a)

구 분	상위농가(A)	평균(B)	하위농가(C)	비율		
				A/B	C/B	A/C
총수입(천원)	15,429	9,403	5,175	1.6	0.6	3.0
- 수량(kg)	6,857	4,073	2,700	1.7	0.7	2.5
- 가격(원)	2,250	2,335	1,917	1.0	0.8	1.2
경영비(천원)	4,872	4,517	4,268	1.1	0.9	1.1
소 득(천원)	10,557	4,886	907	2.2	0.2	11.6

○ 2017년산 하우스월동 감귤재배 상위농가의 소득은 10,557천원으로 하위농가의 11.6배 수준

○ 상위농가와 하위농가의 10a당 경영비는 비슷하였으나, 상위농가의 수량은 2.5배, 수취가격은 1.2배여서 총수입이 훨씬 많음

☞ 경영비와 가격보다 수량이 총수입과 소득에 더 영향을 미침

상 · 하위 20%농가간 소득 비교 (한라봉)

(기준 : 10a)

구 분	상위농가(A)	평균(B)	하위농가(C)	비율		
				A/B	C/B	A/C
총수입(천원)	15,410	12,381	7,808	1.2	0.6	2.0
- 수량(kg)	4,226	2,738	1,582	1.5	0.6	2.7
- 가격(원)	3,650	5,337	5,547	0.7	1.0	0.7
경영비(천원)	5,945	7,191	7,058	0.8	1.0	0.8
소 득(천원)	9,465	5,190	749	1.8	0.1	12.6

○ 2017년산 한라봉 재배 상위농가의 소득은 9,465천원으로 하위농가의 12.6배 수준

○ 상위농가가 하위농가보다 10a당 경영비가 낮고, 가격이 0.7배이며, 수량이 2.7배여서 총수입이 훨씬 많음

☞ 가격과 경영비보다, 수량이 총수입과 소득에 더 영향을 미침

□ 상 · 하위 20%농가간 소득 비교 (세토카)

(기준 : 10a)

구 분	상위농가(A)	평균(B)	하위농가(C)	비율		
				A/B	C/B	A/C
총수입(천원)	20,864	15,513	16,200	1.3	1.0	1.3
- 수량(kg)	4,582	3,396	3,600	1.3	1.1	1.3
- 가격(원)	4,554	4,578	4,500	1.0	1.0	1.0
경영비(천원)	7,045	5,497	4,871	1.3	0.9	1.4
소 득(천원)	16,684	10,016	3,809	1.7	0.4	4.4

○ 2017년산 세토카 재배 상위농가의 소득은 16,684천원으로 하위농가의 4.4배 수준

○ 상위농가가 하위농가보다 10a당 경영비가 많으나, 수량이 1.3배여서 총수입이 많음

☞ 가격과 경영비보다, 수량이 총수입과 소득에 더 영향을 미침